

## 아동기 자녀의 미디어기기 중독과 관련 변인 간의 구조분석: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종단매개효과 검증\*

성정혜<sup>1)</sup> 김춘경<sup>2)</sup>

---

### 요약

---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정적 가족생활사건과 우울, 통제적 양육행동, 아동기 자녀의 미디어기기 중독 간 종단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KICCE)에서 수행한 한국아동패널조사(PSKC)의 4차(2011년)에서 10차년도(2017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정적 가족생활사건과 아동기 자녀의 미디어기기 중독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우울 초기값과 변화율, 통제적 양육행동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유의미한 종단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정적 가족생활사건 경험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아동기 자녀의 미디어기기 중독을 감소시키기 위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와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부정적 가족생활사건, 우울, 통제적 양육행동, 미디어기기 중독,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

## I. 서론

정보화 사회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현대사회에서는 인터넷이 필수화되고 모든 상황에서 활용되어지고 있다. 이는 스마트폰의 등장과 보편화로 인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게 되었고, 기기의 조작이 편리해지면서 청소년과 성인뿐만

---

\* 본 논문은 제 10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2019.11.01)에서 발표된 연구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1) 경북대학교 아동학부 외래교수

2) 경북대학교 아동학부 교수

아니라 아동에게서도 스마트폰 과몰입 현상이 쉽게 나타나게 되었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19)에서 실시한 ‘2018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3~9세 아동의 20.7%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이는 17.4%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나타난 성인보다 높은 수치이며, 2015년과 비교해 만 3~9세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8.3%가 높아진 수치이다. 또한, 여성가족부(2019)에서 조사한 ‘2019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에서는 초등학교생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의 수가 56,344명으로, 2017년 50,335명인 것과 비교해보면 약 1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디어기기에 대한 중독 현상의 저연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인 아동은 미디어기기 사용에 대한 조절과 통제력이 부족하여 중독에 따른 위험이 더욱 크며(김병년·최홍일, 2013), 수면 부족, 건강 악화, 문제해결능력의 부족, 대인관계의 어려움, 시력 저하 등과 같이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김보경·백용매·허창구, 2016; 박정아·정지나, 2015; 정송화·이정은·김미정, 2019). 특히,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환경 속에서 자라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라고 불리는 오늘날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Prensky, 2001), 아동기의 미디어기기 중독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따라서 아동기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미디어기기 중독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해결방안을 찾는 데 중점을 두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개입이 필요하다.

아동기는 청소년기로 넘어가기 이전의 시기로, 아직 또래관계보다는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특히,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며 어머니가 가진 개인적인 특성들이 아동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가족들과의 생활 속 사건들로 인해 어머니들은 긍정적이고 애정적인 태도로 일관되게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생활사건은 가족체계 내에서 변화를 일으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된다(Lavee, McCubbin, & Olson, 1987). 이러한 부정적인 가족생활사건을 겪게 되는 어머니는 불안이나 우울, 분노, 공포, 무기력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살로까지 이어지게 된다(Kramer, Lindy, Green et al., 1994). 또한, 무의식적으로 세대 간에 전이가 일어나게 되어 자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Kellermann & Hudgins, 2000). 가족 내에서 겪게 되는 부정적인 생활사건은 어머니로 하여금 자녀와의 관계를 회피하게 만들고, 이러한 회피적인 상호작용은 자녀가 미디어기기

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기 쉽게 된다(이상희·이정미, 2019). 이와 관련하여 Butt와 Phillips(2008)의 연구에서 어머니가 스트레스에 취약한 경우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Cingel과 Krcmar(2013)는 부모가 겪은 부정적인 생활사건 경험이 아동의 미디어 중독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어머니의 부정적 가족생활사건 경험은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어머니의 부정적인 정서·행동적 특성을 매개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다양한 인지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예기치 못한 부정적인 가족생활사건의 경험은 ‘위험한 세상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며,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만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저 당하고 있을 수 밖에 없다.’라는 역기능적인 신념을 불러일으킨다고 하였다(Ehlers & Clark, 2000; Foa & Rothbaum, 2001). Beck(1979)은 역기능적인 인지 도식이 부정적인 정서와 행동을 초래한다고 하였는데, 어머니의 부정적 가족생활사건 경험은 인지적 오류나 부정적인 내용의 인지적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부적응적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경애, 1997). 김진이(2009)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생활사건 스트레스 경험이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Banyard와 Williams, Siegel(2003)은 일상 속에서 겪게 되는 복합적인 생활사건들이 부모의 통제적인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통제적 양육행동은 자녀에게 엄격한 제한을 설정해두고 부모의 권위를 강조하며 제한이나 처벌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기보다는 순종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조복희·이진숙·이홍숙·권희경, 1999). 본 연구에서는 통제적 양육행동을 권위주의적인 양육방식으로서, 자녀의 행동을 억압하며 자율성을 통제하는 부정적인 양육태도의 한 측면으로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어머니의 우울과 통제적인 양육행동은 아동기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송하나, 2017),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폰 등과 관련하여 미디어기기 중독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권미영·정윤주, 2018; 박남심·송승민·박보경·김정은·변유정, 2017). 이는 어머니가 경험한 부정적인 생활사건이 우울과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매개로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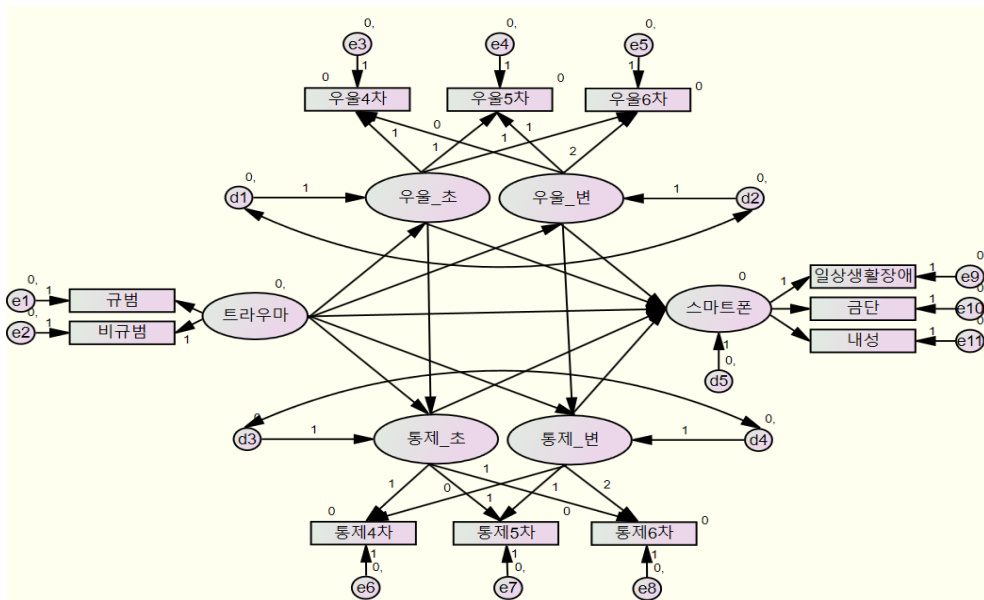
이러한 어머니의 부정적 가족생활사건 경험은 어머니의 정서적·행동적 측면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심리적인 증상과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Marshall과 Miles, Stewart(2010)의 연구에서는 개인적인 스트레스 사건이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를 지속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으며, 김표민(2016)은 중단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부정적인 인지적 특성이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Appleyard와 Osofsky(2003)는 어머니의 생활 속 스트레스 경험이 양육행동을 부정적으로 변화시킨다고 하였으며, Ning과 Downing(2010)은 이전의 인지

적 왜곡이 이후의 정서와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유아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겪은 부정적인 가족생활사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신의 정서적·행동적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어머니의 정서적·행동적인 문제는 다시 아동기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아동의 문제행동이 나타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정적인 가족생활사건으로 인한 어머니의 우울과 통제적 양육행동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어머니의 인지·정서·행동적 특성이 아동기 자녀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연구문제 각각에 대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정적 가족생활사건 경험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동기 자녀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어머니의 우울 초기치 및 변화율의 중단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정적 가족생활사건 경험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동기 자녀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 행동 초기치 및 변화율의 중단매개효과는 어떠한가?



[그림 1] 연구모형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아동패널조사(PSKC;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조사는 1차년도(2008년)를 기준으로 하여 현재 10차년도(2017년)까지 자료가 공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들 중 유아기에 해당하는 4차년도(2011년)에서 아동기에 해당하는 10차년도(2017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통해 4차년도에서 10차년도까지 매년 설문에 참여한 아동을 대상으로 1,214명의 유효응답을 얻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2011년)			N (%)
가구 특성	거주지역	서울권	161(13.3)
		경인권	366(30.1)
		대전/충청/강원권	185(15.2)
		대구/경북권	160(13.2)
		부산/울산/경남권	206(17.0)
		광주/전라권	136(11.2)
자녀 특성	성별	남아	624(51.4)
		여아	590(48.6)
	출생순위	첫째	669(55.1)
		둘째	487(40.1)
		셋째 이상	58(4.4)
		연령	24세 이하
어머니 특성	연령	25세-29세	163(13.4)
		30-34세	736(61.6)
		35세 이상	303(24.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 졸업		347(28.5)
	대학교 졸업		450(37.1)
	대학원 졸업		52(4.3)
	전체		

## 2. 측정도구

### 가. 유아기 어머니의 부정적 가족생활사건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정적 가족생활사건을 측정하기 위해 4차년도 자료 중 MuCubbin과 Patterson, Wilson(1982)이 개발한 가족생활사건 변화 척도를 이재림과 옥선화(2001), 최연실(1996)이 수정한 것을 토대로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육아정책연구소, 2015). 가족생활사건 척도의 하위요인은 규범적 생활사건과 비규범적 생활사건으로 분류되어 있다. 규범적 생활사건은 일반적으로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가족구성원이 겪게 되는 사건들로, 본 척도에서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 자녀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어려움이나 걱정,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규범적 생활사건은 가족생활주기와 관계없이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사건들로, 본 척도에서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 혹은 사망, 주변 사람의 범죄행위 등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가족생활사건 문항 중 “가족 내에서 승진한 사람이 있다”와 같이 긍정적인 문항을 제외하고 총 24문항을 활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방식은 지난 1년간 대상 가족이 경험해보았을 가능성이 있는 가족생활사건 별로 ‘경험함’에 응답하는 경우 1점으로 채점하였으며, 응답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규범적 생활사건의 경우 0점에서 13점, 비규범적 생활사건의 경우 0점에서 1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가족생활사건 경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나. 어머니의 우울

어머니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의 4차, 5차, 6차년도 자료 중 Kessler 등(2002)이 개발한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다. 우울 척도는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은 Likert식 5점 척도이며, 응답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6점에서 3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alpha$  계수는 4차 .910, 5차 .921, 6차 .915로 나타났다.

## 다.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4차, 5차, 6차년도 자료 중 조복희와 이진숙, 이홍숙, 권희경(1999)이 개발한 양육 행동 척도를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자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도구프로파일, [http://panel.kicce.re.kr/panel/board/index.do?menu\\_idx=42&manage\\_idx=26](http://panel.kicce.re.kr/panel/board/index.do?menu_idx=42&manage_idx=26)). 양육행동 척도의 하위요인은 긍정적인 양육태도인 온정적 양육과 부정적 양육태도인 통제적 양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연구의 목적에 따라 통제적 양육행동만을 활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활용한 통제적 양육행동은 부모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위해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벌을 주며 자율성을 억압하는 양육태도를 의미한다. 본 척도는 '나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벌을 주고 반성하게 한다.', '나는 아이가 내 말에 순종하도록 한다.', '나는 가정교육을 위해 아이의 행동을 제한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은 Likert식 5점 척도이며, 응답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6점에서 3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통제적 양육행동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 ) 계수는 4차 .772, 5차 .761, 6차 .750으로 나타났다.

## 라. 아동기 미디어기기 중독

아동기 미디어기기 중독을 측정하기 위해 10차년도 자료 중 한국정보화진흥원(2009)에서 개발하고 인터넷 중독대응센터(iapc.or.kr)에서 제공하고 있는 'K-척도(인터넷 중독 진단척도) 청소년 관찰사용'을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도구프로파일, [http://panel.kicce.re.kr/panel/board/index.do?menu\\_idx=42&manage\\_idx=26](http://panel.kicce.re.kr/panel/board/index.do?menu_idx=42&manage_idx=26)). 미디어기기 중독 척도의 하위요인은 3가지의 요인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김동일과 이은아, 정여주, 김동민, 조영미(2008)의 연구를 참고하여 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으로 명명하였다. 본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은 Likert식 4점 척도이다. 응답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일상생활장애의 경우 7점에서 28점, 금단과 내성의 경우 각각 4점에서 1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미디어기기 중독 경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 ) 계수는 일상생활장애 .747, 금단 .752, 내성 .734로 나타났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머니의 우울과 통제적 양육행동의 변화를 확인하고,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가족 트라우마, 우울, 통제적 양육행동과 아동기 자녀의 미디어기기 중독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에서 조사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각 변인 간의 인과관계와 한국아동패널에서 각 변인을 측정할 시기를 고려하여 최종모형을 선정하였다. SPSS 18.0과 AMOS 18.0을 활용한 구체적인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각각의 관찰변인에 대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어머니의 우울과 통제적 양육행동의 변화모형을 탐색하고,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다변량 잠재성장모형(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ing)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변화에 있어서 유의미한 개인차의 정도와 한 변인에서 나타난 변화와 다른 변인에서 나타난 변화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분석방법으로, 변인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변인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을 개발하고 모형 사이의 관련성을 검증할 수 있는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할 수 있다(Duncan & Duncan, 2004).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한  $\chi^2$ (CMIN)값은 대표적인 적합도 지수지만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므로(홍세희, 2000), 본 연구에서는 TLI와 RMSEA, CFI를 함께 살펴보았다. TLI와 RMSEA는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고, CFI는 부합도 지수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적합도 지수를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모형 적합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진단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문수백, 2010). RMSEA는 .05이하면 좋음, .08이하면 양호, .10이하면 보통의 적합도인 것으로 판단되며, TLI와 CFI가 .90이상이면 양호한 적합도 지수라고 할 수 있다(Hu & Bentler, 1999).

## III. 연구결과

### 1.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측정 시점에 따른 각 변인의 기술통계를 살펴본 결과,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와 같다.



〈표 2〉 각 변인별 기술통계

잠재변인	관측변인	<i>M</i>	<i>SD</i>
부정적 가족생활사건	규범	3.242	2.271
	비규범	.713	.968
우울	우울 4차	11.552	3.934
	우울 5차	12.416	4.991
	우울 6차	13.087	5.812
통제적 양육행동	통제 4차	19.374	3.298
	통제 5차	20.130	3.301
	통제 6차	21.211	3.302
미디어기기 중독	일상생활장애	11.073	3.416
	금단	7.407	2.374
	내성	6.343	2.434

먼저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정적 가족생활사건 평균값은 4차를 중심으로 규범 3.242, 비규범 .713으로 나타나 비규범적 생활사건보다는 규범적 생활사건이 더욱 많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우울 평균값은 4차 11.552, 5차 12.416, 6차 13.087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 평균값은 4차 19.374점, 5차 20.130, 6차 21.211로 나타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머니의 우울과 통제적 양육행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동기 자녀의 미디어기기 중독은 10차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장애 11.073점, 금단 7.407점, 내성 6.343점으로 나타나 일상생활장애가 금단과 내성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통계적 모델의 측정변인 간의 상관행렬을 추정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측정변인 간의 상관행렬

	1	2	3	4	5	6	7	8	9	10	11
1	1										
2	.454***	1									
3	.444***	.406***	1								
4	.476***	.441***	.743***	1							
5	.504***	.471***	.687***	.784***	1						
6	.281***	.223***	.249***	.212***	.283***	1					

	1	2	3	4	5	6	7	8	9	10	11
7	.311***	.279***	.301***	.299***	.283***	.706***	1				
8	.347***	.314***	.346***	.376***	.391***	.621***	.725***	1			
9	.398***	.371***	.438***	.487***	.558***	.271***	.288***	.373***	1		
10	.431***	.426***	.448***	.508***	.563***	.263***	.314***	.388***	.748***	1	
11	.441***	.448***	.457***	.532***	.595***	.211***	.282***	.374***	.720***	.767***	1
1. 규범	2. 비규범	3. 우울 4차	4. 우울 5차	5. 우울 6차	6. 통제 4차	7. 통제 5차	8. 통제 6차	9. 일상생활장애	10. 금단	11. 내성	

\*\*\*  $p < .001$ .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어머니의 우울 및 통제적 양육행동의 분석모형

어머니의 우울과 통제적 양육행동 간 변화 정도를 기초로 관련성을 추정하는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기 전 우울과 통제적 양육행동의 기술통계값에 제시된 세 시점의 평균 변화패턴을 바탕으로 각 변인에 대해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을 적용하였다. 세 시점에서 변화가 일관성 있게 감소하거나 증가한 변수의 경우에는 선형모형을 적용하였으며, 세 시점에서 변화가 일관성 있게 감소하거나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변화모형을 적용하였다. 각 시점에서 평균 변화를 살펴본 후, 각 변인에 대한 변화모형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표 4>와 같다.

<표 4> 각 변인의 모형 적합도와 모형에 대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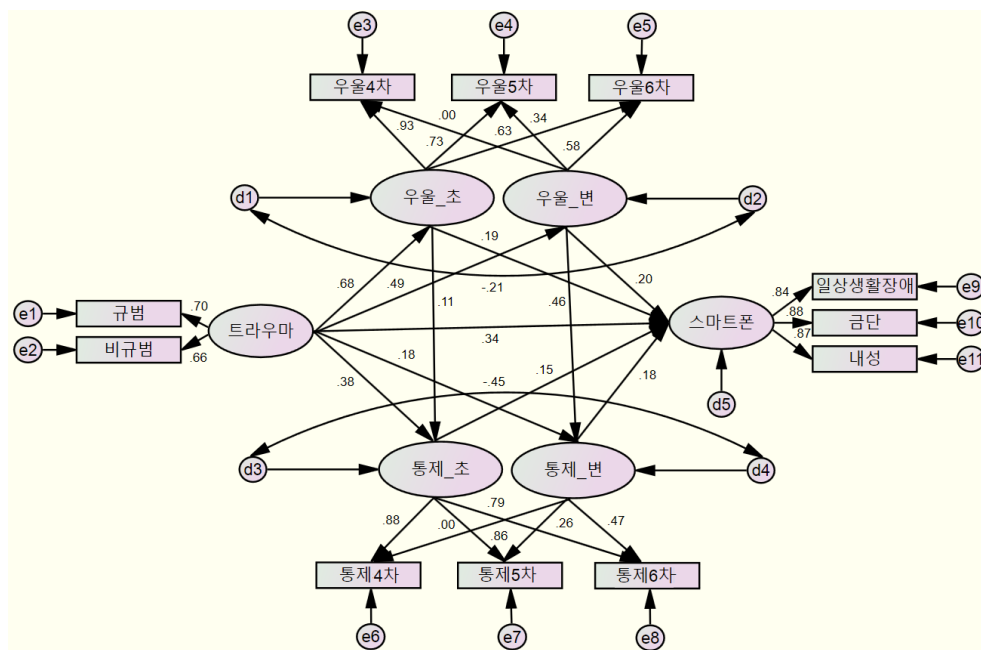
	$\chi^2$	df	$p$	TLI	CFI	RMSEA	평균		분산	
							초기치	변화율	초기치	변화율
우울 무변화	467.734	4	.000	.842	.790	.309	12.168***		.123***	
우울 선형변화	1.438	1	.230	.997	.999	.019	11.565***	.774***	.112***	.060***
통제 무변화	452.548	4	.000	.817	.749	.299	20.011***		.087***	
통제 선형변화	9.624	1	.002	.985	.995	.084	19.413***	.861***	.095***	.046***

\*\*\*  $p < .001$ .

어머니의 우울과 통제적 양육행동의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두 변인에서 모두 선형변화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우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통제적 양육행동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우울과 통제적 양육행동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분산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에 따라 모든 변인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의 선형변화모형을 최적의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 3.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효과검증

변인 별 분석모형 결과를 토대로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설정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개발하였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에 대한 최종모형은 [그림 2]와 같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CMIN = 55.172(df = 35), TLI = .994, CFI = .996, RMSEA = .021(HI = .034, LO = .007)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모수추정치에 대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그림 2]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에 대한 최종모형(표준화 계수)

〈표 5〉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모수추정치

모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C.R.	표준화 계수
부정적 생활사건 → 우울 초기치	3.897	.254	15.342***	.678
부정적 생활사건 → 우울 변화량	1.278	.122	10.475***	.491
부정적 생활사건 → 통제 초기치	1.732	.277	6.252***	.376
부정적 생활사건 → 통제 변화량	.239	.102	2.343*	.179
부정적 생활사건 → 미디어기기 중독	1.548	.326	4.755***	.345
우울 초기치 → 통제 초기치	.088	.039	2.256*	.114
우울 초기치 → 미디어기기 중독	.148	.035	4.228***	.191
우울 변화량 → 통제 변화량	.238	.046	5.174***	.459
우울 변화량 → 미디어기기 중독	.343	.097	3.536***	.203
통제 초기치 → 미디어기기 중독	.149	.039	3.821***	.148
통제 변화량 → 미디어기기 중독	.592	.268	2.209*	.183

\* $p < .05$ , \*\*\* $p < 0.001$ .

어머니의 우울과 통제적 양육행동의 초기치와 변화율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초기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유아기 어머니의 부정적 가족생활사건 경험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우울과 통제적 양육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우울과 통제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아동기 미디어기기 중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변화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부정적 가족생활사건 경험이 높아질수록 어머니의 우울과 통제적 양육행동의 증가정도를 가속시키는 경향을 보였으며, 어머니의 우울수준과 통제적 양육행동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기 미디어기기 중독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5〉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변인들 간의 종단매개효과를 경로별로 분석하기 위해 Rindskopf(1984)가 제시한 Phantom 변수를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종단매개효과 검증

모수	매개효과 (Unstandardized)
유아기 어머니의 부정적 가족생활사건 → 어머니 우울 초기치 → 아동기 미디어기기 중독	.576**
유아기 어머니의 부정적 가족생활사건 → 어머니 우울 변화율 → 아동기 미디어기기 중독	.439*
유아기 어머니의 부정적 가족생활사건 → 어머니 통제적 양육행동 초기치 → 아동기 미디어기기 중독	.037*
유아기 어머니의 부정적 가족생활사건 → 어머니 통제적 양육행동 변화율 → 아동기 미디어기기 중독	1.021**

\* $p < .05$ , \*\* $p < .01$ .

유아기 어머니의 부정적 가족생활사건 경험은 어머니 우울 초기치와 변화율을 매개로 아동기 미디어기기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 초기치와 변화율 또한 유의미한 중단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아동기 자녀의 미디어기기 중독을 결과변인으로 놓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인으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경험한 부정적 가족생활사건과 우울, 통제적 양육행동을 선정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머니의 우울과 통제적 양육행동의 변화양상을 살펴본 후, 자녀가 유아기일 때 어머니가 경험한 부정적 가족생활사건과 아동기 자녀의 미디어기기 중독 간의 관계에서 중단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가 유아기일 때 어머니가 경험한 부정적 가족생활사건과 아동기 자녀의 미디어기기 중독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우울 초기값과 변화율은 유의미한 중단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기값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유아기일 때 어머니의 부정적 가족생활사건 경험이 많을수록 어머니의 우울이 높아지고, 변화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높은 부정적 가족생활사건 경험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머니 우울의 증가정도를 가속시키게 된다. 이렇게 높아진 어머니의 우울은 자녀가 아동기가 되었을 때 미디어기기 중독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유래 등(2019)의 연구에서 트라우마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와 현은자와 박은미, 조메리명희, 김태영(2013)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유아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정적 가족생활사건 경험은 예기치 않은 스트레스로 인해 어머니의 마음속에 상처로 자리 잡아 자녀를 키우는 동안 자신의 삶을 통제하거나 억압하게 되고, 신체적·심리적·행동적·사회적 측면에서 역기능적인 문제들을 초래하게 된다(나동석 외, 2015). 즉, 부정적 가족생활사건 경험으로 인해 안정적인 심리형성에 어려움이 나타나게 되고, 이는 부정적인 심리적·정서적 문제로서 우울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부정적 생활사건은 일시적으로 우울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생활사건이라는 것이 예상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인해 늘 불안해거나 신경이 예민해지는 등 장기적으로도 우울 수준의 증가속도를 가속시키게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우울 수준이 높아진 어머니는 자

녀의 요구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해주지 못하게 되고, 아동은 충족되지 못한 요구를 채우기 위해 미디어기기에 의존하게 되며 나아가 미디어기기에 대한 중독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

둘째, 자녀가 유아기일 때 경험한 어머니의 부정적 가족생활사건은 자녀가 아동기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미디어기기 중독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 초기값과 변화율은 유의미한 종단매개효과가 있다. 즉, 초기값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정적 가족생활사건 경험이 많을수록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높아지고, 변화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자녀가 유아기일 때 어머니가 경험한 높은 부정적 가족생활사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머니 통제적 양육행동의 증가정도를 가속시키게 된다. 이렇게 높아진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아동기 자녀의 미디어기기 중독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ohen과 Hien, Batchelder(2008)이 어머니의 부정적인 경험은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백지은(2009)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경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부정적인 가족생활사건 경험은 충격적이었던 과거의 경험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일상생활 속에서 통제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Herman, 2007). 즉, 어머니의 부정적인 생활사건 경험은 자녀들에게 자신이 겪은 사건들이 똑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혹은 언제든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인해 주변으로부터 오는 자극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고, 아이들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고, 사사건건 간섭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건 하면 안돼.”, “그런 행동 하지마.”와 같이 통제적이고 억압적인 규칙을 적용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이들의 조심성을 키우기보다는 오히려 아동의 저항심을 불러오게 되고, 이는 아동의 미디어 사용시간이나 중독 경향성을 증가시키게 된다(Vandewater, Park, Huang et al., 2005). 아동은 어머니의 과잉통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주변의 통제가 적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온라인에서 정서적 지지나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게 되고, 시·공간의 제약 없이 온라인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미디어기기에 중독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아동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기보다는 어머니의 지나친 통제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기 어려워지게 되면서(Flores, 2004), 미디어기기에 대한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중독 경향성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종단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결과는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해 어머니의 통제적인 양육행동과 우울 수준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어머니가 경험한 부정적인 가족생활사건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가족생활사건은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사건이지만 언제 일어나게 될지, 어떤 형태로 일어날지, 심각성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 예측할 수 없어 부정적인 가족생활사건을 감소시키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의 접근 방안을 세우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부정적인 가족생활사건이 인지적인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최수진과 황성훈(2019)의 연구를 함께 고려해봄으로써 부정적인 가족생활사건을 직접적으로 예방하기보다는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반복적인 부정적 생각을 확인하여 여기서 오는 어머니의 정서적인 문제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행동적인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합리적 정서행동치료(REBT; 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나 마음챙김에 기반한 인지치료(MBCT; 치료(Mindfulness), 수용전념치료(Acceptance Commitment Therapy; ACT) 등의 인지행동치료의 이론들을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상담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예방적 차원에서는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고, 사회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 자원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부정적인 가족생활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자신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인 서비스와 구축망이 형성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한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유아기일 때 경험한 어머니의 부정적 가족생활사건이 자녀가 아동기가 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이는 개인의 부정적인 가족생활사건 경험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문제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기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대해 아동만을 대상으로 상담 및 개입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기보다는 어머니의 심리·사회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어머니의 상담 및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아동의 중독을 감소시키기 위해 어머니와 아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어머니의 우울과 통제적 양육행동을 종단적으로 살펴보았다. 어머니의 부정적인 가족생활사건 경험이 역기능적인 인지 상태를 유발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유정, 2015; Dalgleish, 2004), 부정적인 인지가 정서적·행동적인 측면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인지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것을 통해 부정적인 인지에 대해 조기에 개입하여 정서·행동적 문제를 예방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과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미디어기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어머니와 관

련된 변인에 국한하여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생활사건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경험한다는 점과 아버지의 양육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후연구에서는 아버지와 관련된 변인을 함께 살펴본다면 더욱 의미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의 미디어기기 중독을 한 시점(10차)에서 측정한 데이터만을 사용하였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의 비율이 청소년기에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동기에서 청소년기까지 시간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에서 조사한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기 자녀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어머니의 개인적인 특성 중 자녀가 유아기 일 때 어머니의 우울수준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유아기에서 아동기는 지속적인 발달과정으로서 추후 연구에서는 아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어머니의 개인적인 특성을 유아기 뿐만 아니라 아동기까지 포함하여 살펴봄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탐색과 구체적인 개입방안을 찾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본 연구결과를 통한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유아기의 환경적인 요인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종단연구를 통해 아동기에 발생하는 문제행동에 대해 아동기의 상황적인 요인을 고려한 일시적인 개입보다는 유아기와 같이 발달단계의 이전 시기의 환경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개입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와 유치원 간의 연계망을 구축함으로써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졸업과 동시에 초등학교의 입학으로 모든 관계를 마무리 짓기보다는 아이들이 앞으로 성장해나가고 행동을 변화시키고, 사회성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참고하고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연계망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와 같이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되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주기적으로 부모님들과의 소통을 통해 가정환경적 요인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하지만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 간 연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아동의 학교생활에 대해 교사가 주로 책임을 지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으로 인해 연계망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아동에 대한 학교급별 연계망을 활용함에 있어서 교사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고,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유아기일 때 어머니와 관련된 환경적인 특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동기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어머니와 아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자녀가 유아기일 때 어머니와 유아에게 미디어기기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개입이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가 부정적인 정서와 행동적인 문제로 인해 아동과의 관계를 회피함으로써 자녀에게 미디어기기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살펴보고,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 유형이나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맞추어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경향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어머니와 아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가 있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아기 자녀의 부모가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디지털 육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선행연구(김명순 외, 2017; 김주아, 2013)와 함께 고려해보았을 때, 유아교육 및 발달 관련 전문가가 유아기의 자녀와 오프라인에서 어머니와 함께 놀이와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부정적인 가족생활사건과 정서 및 행동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어느 하나의 측면에 초점을 둔 일차원적인 개입보다는 여러 가지의 측면들을 고려한 다차원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문제로 인해 부정적인 가족생활사건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김지윤·이동훈·김시형, 2018), 부정적인 가족생활사건을 개인적인 측면으로 분류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발생할 수 있음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인 불안의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가족생활사건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관심이 필요하며, 사람들의 정신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부정적인 가족생활사건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세대 간의 전이를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부정적인 생활사건을 경험하는 한 개인에게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생활사건으로 인해 가족들이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가족들이 함께 이러한 문제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가족상담전문가나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에서 운영하는 가족기능보완사업 및 가족문제해결·치료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경유래·김영서·김주영·박은서·윤예은·이수진·조성은·주서희·황선영·Tsang Lok Yi(2019). 여대생의 트라우마와 자존감, 가족지지 및 갈등, 우울의 상관관계 연구. *이화간호학회지*, 53(67), 65-76.
- 권미영·정윤주(2018).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 양육효능감, 양육행동과 유아의 스마트폰 의존 간 관계. *놀이치료연구*, 21(1), 153-169.
- 김동일·정여주·이은아·김동민·조영미(2008). 아동, 청소년상담: 간략형 청소년 인터넷중독 자가진단 척도 개발과 타당화. *상담학연구*, 9(4), 1703-1722.
- 김명순·김길숙·김지연·신혜영·정미림·최현희·최지예(2017). 아동 놀이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보건복지부 연구보고 11-1352000-002121-01.
- 김병년·최홍일(2013). 과보호적 부모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29(1), 1-25.
- 김보경·백용매·허창구(2016). 애착과 스마트폰 및 SNS 중독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문제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3(3), 483-502.
- 김주아(2013). 영아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태도 연구.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4(4), 545-569.
- 김지윤·이동훈·김시형(2018). PTSD 증상의 조건비율에 근거한 한국 성인의 트라우마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4(3), 365-383.
- 김진이(2009).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만성적 스트레스 경험이 유아기 자녀를 둔 저소득층 어머니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25, 25-56.
- 김표민(2016).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우울수준에 관한 종단연구: 변화궤적에 따른 잠재계층을 중심으로.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4(4), 124-153.
- 나동석·서혜석·이대식·강희양·곽의향·김미혜·신경애(2015). *최신 정신건강론*. 서울: 양서원.
- 문수백(2010). *연구방법의 실제*. 서울: 학지사.
- 박경애(1997). *인지정서행동치료*. 서울: 학지사.
- 박남심·송승민·박보경·김정은·변유정(2017). 어머니의 우울과 거부-방임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의 매개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3(5), 1-19.
- 박정아·정지나(2015). 초등학생의 자기통제력 및 사회적 지지가 휴대전화 의존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4(6), 769-781.
- 백지은(2009).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의 자기통제 및 문제행동이 초등학생의 인터넷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2(2), 111-127.

- 송하나(2017). 어머니의 우울과 불안, 통제적 양육 행동이 아동의 불순응과 외현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기 종단연구. 한국아동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201.
- 여성가족부(2019). 2019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유정(2015). 심리적 트라우마의 정보처리: 뇌생리학적 근거와 트라우마 내러티브. 인간·환경·미래, 14, 29-65.
- 육아정책연구소(2015).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도구프로파일. [http://panel.kicce.re.kr/panel/board/index.do?menu\\_idx=42&manage\\_idx=26](http://panel.kicce.re.kr/panel/board/index.do?menu_idx=42&manage_idx=26)
- 이상희·이정미(2019). 어머니의 양육특성과 학교준비도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의 매개효과 검증. 어린이미디어연구, 18(3), 135-160.
- 이재림·옥선화(2001).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가족생활사건, 사회적 지원, 자녀의 지원과 생활만족도.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9(5), 49-63.
- 정송화·이경은·김미정(2019). 스마트폰 중독 초등학생을 위한 개입 프로그램 메타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2), 144-152.
- 조복희·이진숙·이홍숙·권희경(1999). 한국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에서의 차원과 평가.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7(10), 123-133.
- 최수진·황성훈(2019). 생활사건과 우울의 관계에서 반복적 부정 사고의 매개효과와 마음챙김의 조절된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9(3), 399-419.
- 최연실(1996). 청소년 자녀기 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국정보화진흥원(2009). K-척도(인터넷중독) 청소년 관찰자용. <http://www.nia.or.kr>
- 한국정보화진흥원(2019). 2018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http://www.nia.or.kr>
- 현은자·박은미·조메리명희·김태영(2013). 어머니의 스마트폰중독 수준 및 우울 점수와 유아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33(5), 181-205.
- 홍세희(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 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ppleyard, K., & Osofsky, J. D. (2003). Parenting after trauma: Supporting parents and caregivers in the treatment of children impacted by violence.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Official Publication of The World Association for Infant Mental Health*, 24(2), 111-125.
- Banyard, V. L., Williams, L. M., & Siegel, J. A. (2003). The impact of complex trauma and depression on parenting: An exploration of mediating risk and protective factors. *Child Maltreatment*, 8(4), 334-349.
- Beck, A. T. (1979).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Guilford press.
- Butt, S., & Phillips, J. G. (2008). Personality and self reported mobile phone us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4(2), 346-360.

- Cingel, D. P., & Krcmar, M. (2013). Predicting media use in very young children: The role of demographics and parent attitudes. *Communication Studies*, 64(4), 374-394.
- Cohen, L. R., Hien, D. A., & Batchelder, S. (2008). The impact of cumulative maternal trauma and diagnosis on parenting behavior. *Child Maltreatment*, 13(1), 27-38.
- Dalglish, T. (2004). Cognitive approaches to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the evolution of multirepresentational theorizing. *Psychological Bulletin*, 130(2), 228-260.
- Duncan, T. E., & Duncan, S. C. (2004). An introduction to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Behavior Therapy*, 35(2), 333-363.
- Ehlers, A., & Clark, D. M. (2000). A cognitive model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8(4), 319-345.
- Flores, P. J. (2004). *Addiction as an attachment disorder*. Jason Aronson.
- Foa, E. B., & Rothbaum, B. O. (2001). *Treating the trauma of rape: Cognitive-behavioral therapy for PTSD*. Guilford Press.
- Herman, J. L. (2007). *My life and work*. In *Mapping Trauma and Its Wake*. Routledge.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Kellermann, P. F., & Hudgins, K. (Eds.). (2000). *Psychodrama with trauma survivors: Acting out your pain*.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Kessler, R. C., Andrews, G., Colpe, L. J., Hiripi, E., Mroczek, D. K., Normand, S. L., Walters, E. E., & Zaslavsky, A. M. (2002). Short screening scales to monitor population prevalences and trends in non-specific psychological distress. *Psychological Medicine*, 32(6), 959-976.
- Kramer, T. L., Lindy, J. D., Green, B. L., Grace, M. C., & Leonard, A. C. (1994). The comorbidity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suicidality in Vietnam veteran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4(1), 58-67.
- Lavee, Y., McCubbin, H. I., & Olson, D. H. (1987). The effect of stressful life events and transitions on family functioning and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4), 857-873.

- Marshall, G. N., Miles, J. N., & Stewart, S. H. (2010). Anxiety sensitivity and PTSD symptom severity are reciprocally related: evidence from a longitudinal study of physical trauma survivo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9*(1), 143.
- Ning, H. K., & Downing, K. (2010).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motivation and self-regulation: A longitudinal study on academic performance.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6), 682-686.
- Prensky, M. (2001). Digital natives, digital immigrants part 1. *On the Horizon, 9*(5), 1-6.
- Rindskopf, D. (1984). Structural equation models: Empirical identification, Heywood cases, and related problem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13*(1), 109-119.
- Vandewater, E. A., Park, S. E., Huang, X., & Wartella, E. A. (2005). No—you can't watch that parental rules and young children's media us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8*(5), 608-623.

- 논문접수 4월 7일 / 수정본 접수 6월 1일 / 게재 승인 6월 15일
- 교신저자: 김춘경, 경북대학교 아동학부 교수, kkyung@knu.ac.kr

## Abstract

### **An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Related to Childhood Media Device Addiction : A Longitudinal Mediation Analysis Using Multivariate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Junghye Sung and Choonkyung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longitudinal mediation effects of mothers' depression and controlled parent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arly childhood mothers' negative life events and childhood media device addiction.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early childhood mothers' negative life events and childhood media device addiction, multivariate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was used.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fourth, fifth, sixth, and tenth waves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The results of multivariate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revealed that the initial value and the rate of change in mothers' depression and controlled parenting had a significant longitudin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arly childhood mothers' negative life events and childhood media device addi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necessity of a family support program and related research to reduce childrens' media device addiction by examining the negative effects of mothers' negative life events experience on children.

Keywords: negative life events, depression, controlled parenting, media device addiction, multivariate latent growth curve modeling